

제8과 겸손한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 오늘은 그 여덟 번째 시간 ‘겸손한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는 ‘자기 PR(Public Relation)시대’입니다. 자신의 장점을 뽐내고, 특기를 자랑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있는 것도 과장하고 포장해서 화려하게 드러내기 일 수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겸손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섬김 받은 존재가 아니라 섬기는 존재여야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이 머물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섬김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1. 교만은 ()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하는 것은 ‘교만하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 속에는 교만하다가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6:18)

교만으로 인해 망한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몇 가지 예를 찾아보겠습니다.

❖ ()

사울이 처음 왕이 될 때에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왕으로 있으면서 점점 하나님 보다는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사울왕 안에 있는 교만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무엘상 15:17~19)

❖ ()

“웃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매 등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지매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라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팔십 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웃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웃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웃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지라 대제사장 아사라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시므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웃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환자가 되었고 나병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역대하 26:14~21)

→ 웃시야 왕이 강성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기이한 도우심으로 그를 강성하게 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웃시야는 스스로 강성해 진 것으로 착각하고 ‘교만’하여 기름부음 받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하는 일’을 자신이 하려 하다가 ‘나병’이 발하여, 남은 기간 동안 별궁에서 격리되어 살다가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교만으로 인하여 망한 경우입니다.

❖ ()

신약에서는 교만하다 망한 대표적인 인물로 헤롯왕을 들 수 있습니다. 헤롯왕은 ‘야고보’사도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밤에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하시어 베드로를 옥에서 구출해 내십니다. 그런 헤롯의 교만함에 대해 하나님은 그에게 진노하십니다.

“헤롯이 날을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사도행전 12:21~23)

2. 교만에 대한 ()

우리가 교만하면 망한다는 것을 잘 알지만, 동시에 우리가 속는 것은 나와 교만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교만은 대단한 사람들에게만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은 절대로 대단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남들보다 조금만 더 잘하는 것’이 있으면 사단은 여지없이 우리를 교만의 함정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not a fan”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카일 아이들먼’의 책 “나의 끝, 예수님의 시작”이라는 책에서 저자는 교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감히 나한테 그런 말을 해?”하고 말할 때

교만은 비판이나 지적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든다. 즉 자신은 잘못된 게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자신이 상대방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다. 당신에게 사랑의 지적과 비판을 해 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당신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다. ‘비판할 거리가 있어야 비판하겠지’ 천만에, 사람들이 당신을 지적하지 않는 건 괜히 지적했다가 서로 얼굴만 붉힐 줄 뻔히 알아서이다.

“사과할 사람은 내가 아니야”라고 말할 때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사과 할 수 없다. 사과하려면 겸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내 잘못이야 용서해 줘’ 교만한 입술에서 이런 말은 절대 나오지 않는다. 사실 이런 말은 패배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교만한 사람은 싸움이나 언쟁에서 지는 걸 죽기보다 싫어한다.

“이건 공평하지 않아”라고 말할 때

다른 누구 보다는 내가 복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불공평해 보인다. ‘왜 그가 승진했지?’, ‘왜 그가 나보다 더 좋은 집에 사는 거야?’ ‘왜 내가 아닌 저 사람이 장로가 되었지?’ 등등

다른 이들의 성공을 축하할 줄 모른다면 필시 교만의 병에 걸린 것이다. 이미 받은 복에 대해 감사할 줄 모르는 것도 같은 병의 증상이다. 자신이 모든 것을 누려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무엇보다 감사할 수 없다. 뭐든 자기 손에 넣어야만 직성이 풀린다.

“내가 아니라 네가 문제야”라고 말할 때

이것은 다른 사람의 흠을 찾아내는 시력이 좌우 2.0인 바리새인이 애용하는 표현이다. 바리새인은 주변에서 문제를 찾을 뿐 거울은 들여다보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교만이 눈을 멀게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우리가 자신의 교만을 보지 못하는 건 바로 자기 교만 때문이다.

카일 아이들만의 지적처럼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는 ‘교만’은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거나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만 교만의 함정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게 가지고 방심하는 자’에게 교만은 더 효과적인 사단의 도구가 됩니다.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12)

3. 겸손 그리고 (_____)

앞에서 우리는 교만하면 망한다는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는 진리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잠언 18:12)

왜 겸손하면 존귀한 자가 되나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사야 57:15)

그런데 우리는 겸손과 교만을 ‘외형적 표현’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누군가 당당하게 앞서 일하면 ‘교만’하다고 판단하고, 속기 없고 조용한 사람들에게는 주로 ‘겸손’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만과 겸손은 ‘외형적 특징이 아닌 내적 동기’입니다. 즉 그가 진리를 앞세우느냐 자기를 앞세우느냐에 따라 교만과 겸손을 나뉘게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교만과 겸손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의 장면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 이기에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발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사무엘상 17:26~30)

→ 다윗의 모습을 보고 다윗의 형인 엘리압은 그를 ‘교만’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의 행동은 겸손함에 기인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모욕하는 적 ‘골리앗’과 싸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절대로 자신의 능력으로 이 싸움을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사무엘상 17:45)

그리고 마침내 그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나라를 살리게 됩니다. 이처럼 교만과 겸손은 외형적 모습에 있지 않습니다. 내적 동기에 있습니다. 나의 힘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리 외형적으로 겸손한 척 해도 교만입니다. 그러나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가지만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 만을 의지한다면 그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4. 우리에게 ()을 가르치신 주님

이렇게 겸손은 존귀함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겸손을 손수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몸으로 친히 보여 주셨습니다.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가르침은 바로 ‘겸손과 섬김’이었습니다. 자신을 팔아 버릴 유다와 자신을 버리고 도망갈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 주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13~15)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마지막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도 주님과 같이 겸손하게 섬기는 삶을 살기를 바라셔서 그런 본을 보여주시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삶의 모습이 그러해야 합니다. 그냥 ‘세족식’을 거행하는 것으로, 이벤트로, 이 일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성령님께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주님의 본을 따라 겸손하게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지교회 지체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 묵상과 적용

오늘 배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적용할 것들을 적어 보세요!!

[illegible]